마르코 복음서*

두 번째 복음서인 마르코 복음은 그 첫마디에서부터, “하느님의 복음”(1,14), 더 짧게는 그냥 “복음”(1,15)이라고도 하는 “하느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1,1)이 주된 관심사입니다. 즉 마르코에게 있어 복음은 모든 사람을 위한 ‘기쁜 소식’입니다. 그리고 이 기쁜 소식을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에 따라, 하느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모든 사람을 위한 당신의 약속을 실현하셨음을 믿는 그리스도교 신앙이 결정됩니다. 그러면서 복음은 만민에게 선포되어야 함을 강조합니다(13,10; 14,8 참조). 제자들은 예수님에게서 이 사명을 받았고, 이 사명에 따라 제자들의 온 삶이 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마르코 복음사가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선포하기 위하여, 자신을 포기하고 그분을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는 것이 복음을 위하는 길임을 강조합니다(8,35; 10.28 참조). 즉 복음을 위하여 제자들은 자신을 온전히 투신해야 합니다. 그리고 복음은 바로 사람들 사이에 계속되는 하느님의 구원행위라는 것입니다.

마르코 복음사가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며 하느님의 아드님이심을 첫머리에서부터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를 선포할 제자들을 부르시는 대목을 복음서 첫머리에 둡니다(1,16-20 참조). 그리고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파견을 받아 사명을 수행함으로써, 이제 ‘파견된 자’ 곧 ‘사도’로 불림 받았음 전합니다(6,30 참조). 하지만 마르코 복음사가는 사도가 된 제자들의 예수님에 대한 몰이해를 통해 신앙의 더딤도 강조합니다. 이는 십자가를 극복하고 부활을 체험하고서야 신앙의 눈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복음이 선포되고 또 진리로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신앙 고백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는 진실한 삶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복음서 가운데서 가장 먼저 저술된 이 두 번째 복음서를 쓴 이는, 베드로가 로마에 있을 때 그의 통역으로 일했던 마르코입니다. 또한 기원후 64년 네로 황제의 박해가 있고 난 다음에 로마에서 저술된 것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리고 그 대상은 팔레스티나에 사는 비(非) 유다인들이며, 저작 시기는 기원후 65년에서 70년 사이로 추정합니다.

마르코 복음사가의 공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곧 팔레스티나 밖으로 퍼져나간 교회, 그리고 여러 이교 문화와 접촉하는 과정에서 복음의 원천이 상실할 위험에 처한 시점에서 교회의 전통을 고수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신앙은 타협 없는 투신과 함께 예수님을 따르는 가운데, 또 사람들 사이에서 그들을 위하여 일하는 가운데 드러난다는 사실을 상기시킵니다.

그리고 질문합니다. **‘도대체 이분이 누구신가?’**(4,41). 예수님이라는 분은 누구이신가? 이 물음에 대해서 마르코는 첫 신앙인들의 답변을 들려줍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 우리에게도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

*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주석 성경 신약, 마르코 복음서, 49쪽~55쪽>의 내용에서 발췌·요약 정리하였습니다.